

IIRI Online Series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례화와 제도화

이 수 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2024. 2. 16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례화와 제도화



이 수 훈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한미일 안보협력 경과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GDP의 62%, 세계 무역의 46%를 구성하고 있다.¹⁾ 인도-태평양은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 속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조차 앞다투어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토대로 한국의 지역 및 세계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세계 GDP의 32%를 차지하며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속한 한국, 미국, 일본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안보 소다자 협력을 형성했다.²⁾

1) ROK MOFA, "Introducing the Indo-Pacific Strategy."

https://www.mofa.go.kr/eng/wpge/m_26382/contents.do (검색일: 2024년 2월 10일).

2) 조선일보, "세계 GDP 32%... 한미일 '안보·경제 블록' 탄생."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요 목표는 대북정책 공조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3국은 이를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1999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과 2014년 한미일 정보보호약정(TISA: The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을 추진했다. 그러나 두 협력 모두 지속하지 못했다. 2022년 북한은 70회가 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한미일 정상은 당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후 한미일 정상은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에서 만남을 이어갔고, 지난해 8월 첫 3자 단독회담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의에서 협력의 방향과 정례화를 위한 협의를 이뤘다.

한미일 안보협력 정례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건을 채택함으로써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의 번영, 연결성, 회복력, 안정성의 가치를 토대로 협력을 형성할 것으로 뜻을 모았고 3국 간 정보공유를 통해 메시지를 동조화하고 대응조치를 조율한다고 밝혔다. 그 시작으로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함으로써³⁾ 협력 정례화(regularization)의 물꼬를 텃다.

이 밖에도 3국 정상은 연례 정상회담을 비롯해 외교·국방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관료의 연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3국 정상은 다양한 의제뿐 아니라 향후 이를 협의하고 조율하기 위한 기제를 마련했다. 안보적 측면에서 3국 정상은 다영역 합동 군사연습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8/19/BSO3E5EYPJC27ILMMTKUNM3XME/> (검색일: 2024년 2월 10일).

3) 연합뉴스,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9030100504> (검색일: 2024년 2월 10일).

위대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진행했다. 이지스 구축함인 한국의 세종대왕함과 일본의 콩고함 그리고 항공모함인 미국의 칼빈슨(Carl Vinson)함이 참가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했다.⁴⁾

나아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우주 협력도 명문화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2월 5일부터 16일까지 미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센티넬에 참여하여 우주 상황 조치 연합연습을 진행했다. 또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공약에 따라 한미일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 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Inaugural 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를 개최했다.⁵⁾ 이 대화에서 한미일 3국 수석대표는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는 해외정보조작(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위협에 대한 논의도 이뤘다. 유럽에서 개념화한 ‘해외 정보 조작 및 간섭(FIMI: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을 3국 협력에 적용함으로써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 후 우리 외교부는 한미일 3국이 “지역 전략 협의체로서 인태 대화를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⁶⁾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이 협의한 사안들이 점진적으로 정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합동참모본부, “한미일 해상훈련 실시(24. 1. 17. 수),” https://www.jcs.mil.kr/user/boardList.action?boardId=O_121947&siteId=jcs2&page=1&search=&column=&boardType=02&listType=&parent=&boardSeq=O_351114&command=albumView&chkBoxSeq=&chkBoxId=&chkBoxPos=&chkBoxDepth=&chkBoxFamSeq=&warningYn=N&categoryId=&categoryDepth=&id=jcs2_040201000000 (검색일: 2024년 2월 10일).

5) 외교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공동언론발표문,” 2024년 1월 6일, <https://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40107063713133.pdf&rs=/viewer/result/202402> (검색일: 2024년 2월 11일).

6) 외교부,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2024년 1월 6일, <https://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40107063442263.hwp&rs=/viewer/result/202402> (검색일: 2024년 2월 11일).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대북정책 공조 외 한미일 안보협력의 또 다른 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대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로 강조했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이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성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꼽았다. 또한,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이 “세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비전”을 위한 것이고 향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⁷⁾

일각에서는 올해 미 대선 결과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강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최근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오랜 기간 다뤘던 캠벨(Kurt Campbell)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이 지속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돌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오브라이언(O'Brien) 전 보좌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가장 강력한 중국의 대항마”라며 오히려 협력 방향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⁹⁾ 따라서 미 대선 결과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상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속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협력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 7) 연합뉴스,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협력, 北中 대응 넘어 세계를 위한 비전”, 2024년 1월 3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1059700071?input=1195m> (검색일: 2024년 2월 11일).
- 8) Financial Times, “Joe Biden picks Asia expert Kurt Campbell for deputy secretary of state,” November 1, 2023, <https://www.ft.com/content/65202a2b-13e3-4ab8-bca5-870aea67fd33> (검색일: 2024년 2월 12일).
- 9) 동아일보, “[단독] ‘트럼프 최측근’ 오브라이언 “美전력, 中억제에 초점”… 주한미군 조정 시사,” 2024년 2월 7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207/123421986/1> (검색일: 2024년 2월 12일).

사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사무국 설치다.¹⁰⁾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약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발표했다. 3국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 위협에 대한 3자의 대응 조율을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것이다.¹¹⁾ 공동의 위협 발생 시 신속하게 협의하고 공동의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일종의 행동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한미일은 3국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연례 고위급 회담의 의제 및 일정 조정, 3국 합동 훈련 협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3자 협력이 양자 관계 또는 각국의 국내정치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 공조라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적 또는 기능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이익이 받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내외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3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자 소개

이수훈 박사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리하이대학교(Lehigh University)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글로벌 경영학 석사를 취득, 동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박사의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 미국 외교·안보 정책,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다.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A Roadmap for ROK-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JKUS, 2023),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국방 정책: 국제정치이론의 적용」(단행본 공저, 한국국방연구원, 2022), "President Bush'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KJDA, 2021) 외 다수가 있다. (Email: alex.hoon.lee@gmail.com)

10) Alex Soohoon Lee, "A Roadmap for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TSC),"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pp. 1-31.

11) 외교부,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및 한미일 간 협약에 대한 공약,” 2023년 8월 22일, https://www.mofa.go.kr/www/brd/m_26372/view.do?seq=6 (검색일: 2024년 2월 11일).

